“최고의 동아리방서 포교 원력 펼쳐요!”

대불련총동문회, 10월 30일 경희대 동아리방 리모델링 성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경불회 동아리방 팻말을 최재영 회장, 이상권 동문회장, 박유진 대불련 회장,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장(사진 왼쪽부터)이 함께 달고 있다.

“동아리는 학생들간의 친목과 추억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긴 만큼 불교신행 외에도 스터디나 다양한 소모임을 통해 불교동아리의 활성화를 이끌겠습니다.”

경희대 불교학생회 동아리방이 선후배들의 원력을 모아 새로운 보금자리로 거듭났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총동문회(이하 대불련 총동문회, 회장 백효흠) 산하 대학전법지원단은 10월 30일 경희대 학생회관 4층 불교학생회 동아리방에서 동아리방 리모델링 사업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대불련 총동문회는 2018년부터 캠퍼스 포교 활성화지원 사업 일환으로 대불련 동아리방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8년 제주대, 제주교대, 경북대, 성균관대에 이어 올해 경희대서 1차 사업이 종결됐다.

이번 리모델링된 경희대 동아리방은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깔끔한 흰색으로 된 기구에 카페와 같은 분위기로 꾸며졌다. 노트북을 놓고 공부가 가능한 책상들과 TV, 냉장고 등도 설치되어 불자 학생들의 편의를 더했다.

새로운 보금자리 탄생에 경희대 불교학생회(경불회) 선후배들은 기대를 표했다.

최재영 경불회 회장은 “경희대는 공부할 곳이 부족해 시험기간이 이른바 전쟁터다. 불교동아리방이 공부방 역할도 하고 50여 불자학생들의 쉼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최근 대불련에서도 캠퍼스 포교에 신경을 써 많은 곳에서 신입회원들이 늘고 있다. 앞으로 살아 움직이는 불교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리방에서 화이팅을 외치는 경불회 관계자들.

2000만원 예산, 쉼터 구성
신입생, 회원들 활동 터전
소모임, 스터디 등 활성화

이상권 경불회 동문회장은 “예전에 비하면 5성 호텔처럼 보인다. 수시 때 기도도량으로 활용해 호평을 받는 등 불교동아리방은 많은 활용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중심이 생겨 기쁘다”며 “앞으로 서울서도 대학생 포교를 선도하는 경불회가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경불회 법당에는 다른 법당과 달리 삼존불이 모셔졌다. 경불회 회원인 황해정 학생(아동가정학과 17학번)은 “예전 동아리방에 비해 쉴 곳이 많아 좋다. 친구들도 데려오고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승태 지원단장은 “학교 내에서도 불교동아리방이 불교동아리방이 아닌 예쁜 동아리방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향후 동아리방 활성화 및 운영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해 제공해 대학포교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유진 대불련 회장과 백효흠 대불련총동문회 회장은 이번 리모델링 1차 사업을 계기로 종단에서 대불련에 대한 지원도 함께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백 회장은 “10년 전만해도 조계종에서 대불련 지원금이 8000만원에 달했다. 현재는 대학생 포교로 전환되며 대불련에 대한 지원은 점차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회장은 사찰에서도 대학생 불자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캠퍼스에서 대학생과 접점이 높은 것은 대불련”이라며 “최근 대불련의 노력으로 대불련 신입회원 증가 등이 이어지고 있다. 템플스테이 지원 등 불교 미래를 밝히는 인재불사에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동참이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불련총동문회 대학전법지원단은 12월 서울교대 동아리방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예정이다.

“삶의 한파 극복 짜장면으로”

아름다운동행, 10월 29일 보현의집서 노숙인 짜장 공양

추운 가을 날씨에 고생하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불교계 공익법인이 자비행을 펼쳤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대표이사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은 10월 29일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노숙인 쉼터 보현의집에서 200명의 노숙인들에게 짜장공양을 올렸다.

사회에서 외면당한 이들의 얼굴에는 잠시나마 웃음꽃이 폈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10월부터 ‘자비의 밥차-찾아가는 짜장 공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상임이사 자공 스님과 봉사자들은 보현의집 외부에 마련된 솥에서 200인 분의 짜장을 직접 볶고 일일이 배식했다.

자공 스님은 “겨울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불자들의 자비나눔행이 이어지길 바란다”며 “한 그릇의 공양에 불과하지만 따뜻한 정성이 이들의 마음에 닿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양을 받은 노숙인들도 감사인사를 전하며 맛있게 짜장면을 먹었다.

한편, 아름다운 동행은 ‘찾아가는 짜장 공양’ 캠페인을 통해 매월 2회씩 복지관을 찾고 있다. 노덕현 기자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명상을 입히다

11월 14~17일,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서 개최

올해 7회째를 맞은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전 세계적인 명상 열풍에 맞춰 한국 전통의 치유 · 수행문화 확산을 위해 외연을 넓힌다.

2019서울국제불교박람회는 오는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된다. 올해는 ‘명상: 매 순간을 느끼는 습관’이라는 주제로 명상을 비롯한 한국 전통치유 및 수행문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기존 불교 관련 업체들의 부스 외에 별도의 대형 프로그램인 ‘명상 컨퍼런스’와 ‘서울 릴렉스 위크’를 기획했다.

먼저 명상 컨퍼런스는 3가지 공인 명상 프로그램을 세계적인 연사들의 안내에 따라 체험하는 시간이다. 15일에는 의료인류학자이자 불교도인 조안 할리팍스 박사가 창안한 죽음에 관한 명상(Being with Dying, BWD)을 김정숙 BWD코리아 대표와 미국 우빠야 선센터 수석교수진인 앤토니 백 워싱턴대의대 교수, 류재환 경희대 동서의학대학원 주임교수가 설명한다. 이 명상법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나 자신의 죽음을 직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음 명상 훈련으로 각광 받고 있다.

16일에는 하버드 의대 임상심리교수인 거머 박사와 자기연민 연구 선구자 네프 박사에 의해 개발된 마음챙김 자기연민 명상(Mindful Self-Compassion, MSC)이 이어진다. 여기에는 사단법인 한국명상심리상담연구원장 서광 스님과 카렌 노스케롤라이나 의과대 교수, MSC 지도자 효림 스님이 강사로 나선다. 17일은 존 카밧진 박사가 개발한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 기법을 안희영 한국MBSR연구소장, 후 진메이 대만 최초 미국 MBSR 인증지도자, 전현수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강연한다.

윤호섭 기자

선무도 35년, 대중포교 미래 밝혀

경주 골굴사, 10월 26일 선무도 35주년 기념법회


선무도가 자리잡기까지 기여한 스님들과 대중들이 35주년을 맞아 발전을 서원하고 있다.

고대 심신수행의 방편으로 활용됐던 선무도(禪武道) 35주년을 기념하고 승병과의 관계를 고찰하는 기념행사가 열렸다.

경주 골굴사(주지 적운)는 10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선무도 포교 35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기념대법회에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을 비롯해 정경화 한국전통무예총연맹 총재 등 300여 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법회서 전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불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길로 마음과 몸을 함께 수행하는 선무도와 맥이 닿아 있다”며 “선무도 35주년을 맞아 선무도가 세계인의 정신을 이끄는 큰 움직임이 되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정경화 총재도 “현대인들의 정신건강과 행복을 위해 포교하는 적운 스님이 원력을 더욱 널리 펴 선무도가 국위선양과 불교 포교에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골굴사 주지 적운 스님은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이들의 관심과 후원이 있어 가능했다. 특히 선무도 대금강문도들과 함께 해준 제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선무도는 대중의 생활수행으로 한 차원 높은 발전을 선보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기념법회서는 골굴사 선무도 사천왕 공연단과 태혜신카르마프리무용단의 특별공연도 펼쳐졌다.

이날 법회 후에는 승병과 선무도를 주제로 한 특별 학술대회도 열렸다. 학술대회에서는 김창현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고려 초중기 정변에 있어서의 승려와 승병’을 주제로, 문무왕 동명대 교수가 ‘조선 후기 일제강점기 승병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노덕현 기자

아남툽텐 린포체 방한 청년과 만나다

12월 5~16일 집중 수행 등 개최

티벳 로종 수행 지도자인 아남 툽텐 린포체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방한한다. 다르마타코리아는 아남 툽텐 린포체를 지도법사로 12월 7~8일 서울 탄허기념박물관에서 대중 수행을, 12월 5일 부산 홍법사에서 대중 수련회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12월 9일부터 14일까지는 집중안거 수행, 12월 16일에는 서울대에서 ‘청년과의 대화-청년, 길을 묻다’를 진행한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티베트 닝마파 전통에서 수행한 수행지도자로 지난해 서울 국제선센터와 백담사 등에서 티벳 전통 수행인 로종 강연을 진행한 바 있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켐포 쵸펠, 라마갈왕 등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으며 199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가르침을 펴기 시작했다.

노덕현 기자

